

산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홍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6 권 42 호



주일 미사: 오전 9 시 (한국어, 영어), 오전 10 시 30 분(영어), 오후 12 시(스페인어)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평일미사: 월, 화, 목요일에는 오후 6 시. 금요일에는 오전 9 시 30 분.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평일미사 전 (오후 5:30 - 5:50) 또는 시간약속을 요함.
 성체조배: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 매월 둘째 일요일 오후 7 시, 평협회장: 박영우 니콜라스 (661-703-5957)
 성당사무실 시간: 월(오후 2-6 시), 화.수요일 (오전 9:30 시-오후 8 시). 목 (오후 2-6 시),
 금요일(오전 9:30 시-오후 6 시).

미 사 성 가	입당 (34)	봉헌 (510)	성체 (180)	파견 (54)
<p>2016 년도 구역 및 구역원 명단</p> <p>1 구역: 유 마리아(구역장), 이 바실리오, 배 실비아, 배 안젤로, 양 유리안나, 오 베드로, 오 루시아, 유 요한, 손 아놀드, 손 잼마, 최 요안나, 최 마태오</p> <p>2 구역: 이 마틸다(구역장), 이 그레이스, 장 글라라, 이 요한, 이 요셉, 이 데레사, 전 제노베파, 김 안드레아, 김 마르타, 데니엘 한, 사비나</p> <p>3 구역: 김 헬레나(구역장), 박 니콜라스, 박 마가렛, 김 마론, 김 데오도라, 이 바오로, 이 빅토리아, 허 루카, 배 시몬, 김 글라라. 이 올리안나.</p> <p>4 구역: 김 유스티나(총 구역장), 홍마르코, 홍아네스, 박 바오로, 박 세라피나, 이 글라라, 이 안드레아, 이 안젤라, 정 바오로, 정 릿다, 김 유수티노, 김희정, 고순영.</p>		<p>성소를 위한 기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아멘.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11/20	이 그레이스	이 요한, 김 유스티나	박 다니엘
11/27	박 니콜라스	이 바오로, 김 헬레나	성인 복사
12/04	유 요한	이 바오로, 김 헬레나	박 다니엘
12/11	박 니콜라스	이 요한, 김 유스티나	박 다니엘
12/18	이 마틸다	이 요한, 김 유스티나	박 다니엘
12/25	이 마틸다	이 바오로, 김 헬레나	성인 복사

미사 봉헌금 및 교무금

주일미사	봉헌금	2차 봉헌	교무금
11/13/16	\$226	0.00	\$120

San Clemente 성당 홀레스피플 조식 봉사-11/19/16, 오전 8:30

센크레멘테 성당의 홀레스피플을 위한 조식봉사에 수고해 주신, 형제, 자매님께, 감사 드립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공동체나 이웃에서 병환이나 기타 어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모든 분들이 조속히 병환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라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이삭

나의 행복 펠릭스

정수 그라시아 | 배우

저에게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 행복은 바로 펠릭스, 6살인 제 아들입니다. 제 인생 최대의 행운이기도 하죠. 행복, 행운이란 뜻의 펠릭스란 세례명은 임신 중 재능기부를 갔다가 우연히 뱉게 된 신부님이 지어주셨습니다. 펠릭스는 이름처럼 수월하게 세상에 나와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육아가 행복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모가 되는 일엔 연습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에게 자아가 생기고 성장하면서 또 세상과의 만남에서 이런저런 상처들이 생기고 아픔을 겪기 시작하였습니다. 부모로서 마음은 매우 아프지만 그건 아이도 나 자신도 성장하는 과정이란 걸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기가 크면서 생기는 고민들, 상처들을 보듬어주면서 동시에 어린 시절의 상처받은 작은 나와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는 두려워서 내면에 숨겨놓았던, 아주 어렸을 적 감정들을 자연 스럽게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이를 보면서 과거의 나의 상처도 이해하고 아이를 사랑으로 위로하고 보듬어 주면서 상처받았던 내 자신도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육아를 하면서 제일 도움이 되었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마더쇼크'라는 프로그램은 지금 아이를 키우는 분이든 아니든 모두가 보셨으면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부모에게 받은 상처들을 부정하고 싫어하면서 도, 마치 유전형질을 물려주는 것처럼 육아의 태도 또한 답습하여 같은 상처가 되풀이된다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에선 말미에 그 부정적인 사슬을 끊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전 자신 있게 그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다행히 전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것처럼 과한 트라우마는 없었습니다

공동체 소식

소공동체 모임- 11월 3째주(11월 20일)

오늘 친교후에, 소공동체 모인이 구 친교실에서 있습니다.모두 참석하셔서, 나눔과 사랑의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Thanksgiving Dinner; 11월 20일, 오후:5시

Thanksgiving Dinner 는, 오후 5:00 시에 구 친교실에서 있겠습니다.

신부님과 어린이 합창단 - 로마 공연

11월 22일 부터 12월 1일까지, 전신부님과 센크레멘테 성당 어린이 합창단이라마 공연을 위해서 여행을 하십니다. 모든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여행도중, 모두가 영육간에 건강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11월 25일 -대림절을 위한 성당 장식

11월 25일, 금요일, 오찬 9시 미사후에, 대림절을 위한 성당장식에 참여 하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참여하셔서, 주님의 각별한 은총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미사- 11월 24일, 오후:6시

추수감사절 미사는 11월 24일, 오후:6시에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참석하셔서, 나눔과 사랑의 귀한 시간가지시기 바랍니다.

한인회 송년의 밤 - 12월 11일, 오후:6시

2016년도 한인회 송년의밤은 Panda Palace 에서 12월 11일, 일요일, 오후:6시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총무국장; 변창식; 661-444-0356 으로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 그러나 인간이기에 저회 부모님도, 지금의 저도 주님 처럼 또 예수님을 사랑하신 성모 마리아처럼 완벽한 사랑을 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 인간적인 한계와 잘못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기도는 최고의 양육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단순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부족하오니 당신 사랑으로 펠릭스를 사랑하게 하소서. 당신을 사랑하신 성모 마리아를 닮게 하소서." 기도를 하면서 우리 부부는 펠릭스를 대할 때 우리가 받 아왔던 훈육방식에서 조금은 벗어나 주님의 사랑으로 펠릭스를 대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펠릭스는 매일 밤마다 기도 속에 잠듭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저녁기도였지만 지금은 꼭 기도를 들으며 자려고 합니다. 그 포근함을 아는 게지요. 펠릭스가 늘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주님과 일치하여 빛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어린 시절을 치유시켜주고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는 주님의 선물 펠릭스. 주님의 사랑을 재현하고 실천하게 하는 나의 행복이자 행운입니다.

=====

교리 상식

미사 해설이 미사의 경건함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지 않으면 안 되나요?

해설은 미사의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미사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한 것입니다. 해설은 신자들이 진행 순서에 따라 미사에 잘 참여하고, 그날 축제의 의미를 깊이 이해 하도록 돕습니다. 미사 특히 주일과 대축일 등의 미사 때에 적절한 해설은 권장됩니다.

신자 재교육 교리 상식 1 「미사 전례」 | 한국천주교주교회의